고1

6. Pack Up and Go

1. 제안, 요구, 주장, 명령의 동사

- 1) '~을 제안하다', '~을 요구하다', '~을 주장하다', '~을 명령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동사들(ex. insist, ask, command, propose, suggest, recommend, demand...)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that절이 당위성(~해야 한다)을 나타낼 때 조동사 should를 생략할 수 있다. 이때 that절에는 동사원형이 남는다.
- 2) 단, suggest가 '~할 것을 제안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보여주다, 암시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위의 형태를 취하지 않고, 주절에 시제를 일치시켜야 한다.
- 3) 또한, insist가 '~해야 한다고 주장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했다고 주장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주절에 시제를 일치시켜야 한다.
- 4) 화자의 주관적 판단이나,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ex. bad, good, curious, wonderful, surprising...)가 주절에 나오 는 경우에도 that절에 should가 생략되고 동사원형이 남는 형태의 문장(「that + 주어 + (should) + 동사원형」)이 사용된다.

[교과서 예문으로 확인하기]

- I suggest that Jane (should) arrive on Monday.
 - ✓ 제안을 의미하는 동사 suggest 이후에 제안하는 내용이 that절에 나온다. 이때, that절에는 should를 생략하고 동사원형이 남는다.

<해석> 나는 Jane이 월요일에 도착할 것을 제안했다.

Tom insisted that the door (should) be locked at night.

- ✓ 주장을 나타내는 동사 insist가 쓰였으므로 주절의 동사는 동사원형으로 쓰여야 한다.
- <해석> Tom은 밤에는 문이 잠겨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The man commanded that I (should) finish the work by six.

- ✓ command는 "~을 명령하다"라는 의미로, that절의 동사는 동사원형으로 표현해야 한다.
- <해석> 그 남자는 내가 일을 6시까지 끝낼 것을 명령했다.

2. as if 가정법

- 1) as if 다음에 과거 혹은 과거완료 시제를 사용해 현재나 과거의 사실과 반대되는 상황을 가정하기 위해 사용한다.
- 2) as if 가정법 과거의 형태는 [as if + 주어 + 동사의 과거형 ~]이며, "(사실은 그렇지 않지만) 마치 ~인 것처럼"라고 해석한다.
- 3) as if 가정법 과거완료의 형태는 [as if + 주어 + had p.p~]이며, "마치 ~이었던 것처럼"이라고 해석한다.
- 4) [as if + 주어 + 현재동사~]는 현재에 사실일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사용한다.

[교과서 예문으로 확인하기]

She talks as if she were a teacher.

√ 그녀가 선생님이 아니지만, 마치 선생님 인 것처럼 말한다는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 as if 가정법 과거를 사용했다.

<해석> 그녀는 마치 그녀가 선생님인 것처럼 말한다.

He looked as if he had seen a ghost.

√ 그는 사실 귀신을 보지 않았는데 본 것처럼 보였다는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 as if 가정법 과거완료를 사용했다.

<해석> 그는 귀신을 봤던 것처럼 보였다.



미리보는 빈출문장

One day, Dad 1)showed me a wonderful picture of the Northern Lights. It was sent by Erik Nielsen 2), who is Dad's close friend 3)living in Greenland.

1) 4형식 수여동사 show

4형식 문장구조는 [주어+동사+간접목적어+직접목적어]로, 동사 뒤에 두 개의 목적어가 나오며,

"~에게(간접목적어) ...를(직접목적어) .~하다"라고 해석한다.

give, tell, buy, show 등의 동사가 4형식 문장에서 사용된다.

4형식 문장은 간접목적어를 직접목적어 뒤로 이동시키고, 그 앞에 전치사 to, for, of를 넣어 3형식 문장으로 바꿔 쓸 수도 있다. 위 문장의 경우 showed a wonderful picture to me와 같은 의미이다.

2) 관계대명사 계속적 용법

관계대명사는 계속적 용법과 한정적 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계속적 용법은 관계대명사 앞에 콤마(,)가 있는 형태이고, 한정적 용법은 콤마가 없다.

계속적 용법은 선행사에 대한 추가정보를 제공하며 생략되어도 의미를 파악하는데 큰 차이가 없으나,

한정적 용법은 선행사의 의미를 한정, 제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생략하면 의미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위의 문장처럼 고유명사나 대명사가 선행사로 쓰인 경우 가리키는 구체적인 대상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계속적 용법을 사용한다.

3) 명사를 수식하는 현재분사

분사가 단독으로 명사를 수식할 때는 명사 앞에서, 분사구가 명사를 수식할 때는 명사 뒤에서 꾸민다.

꾸미는 명사와의 관계에 따라 능동이면 현재분사, 수동이면 과거분사를 쓰는데,

- 위 문장에서 아빠의 친한 친구가 그린란드에 "살고 있는" 것이므로 현재분사로 수식하였다.
- 이 경우, living앞에 Dad's close friend를 선행사로 가지는 [관계대명사+be동사] who is가 생략된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
- <하석〉 어느 날, 아빠께서는 나에게 북극광의 멋진 사진 한 장을 보여주셨다. 이것은 Erik Nielsen에 의해 보내진 것이었는데, 그는 그린 란드에 살고 있는 아빠의 친한 친구셨다.
- When I got out, I 1)<u>noticed other passengers clapping</u> their hands 2)<u>as</u> they got off. Mom and I followed 3)what they did without knowing why.

1) 5형식 동사 notice

5형식 문장은 [주어+동사+목적어+목적보어]로 구성된다.

notice는 5형식 문장에서 "목적어가 목적보어 하는 것을 보다, 알아채다"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이때 목적보어에 사용된 clapping은 현재분사이다. 승객들이 박수치는 행위를 하는 것이므로 능동의 의미인 현재분사를 사용해야 한다.

2) 접속사 as

접속사 as는 ~하면서, ~하자마자, ~할 때, ~ 때문에 등의 뜻으로 사용된다.

위 문장에서는 ~하면서 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3) 관계대명사 what

선행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절의 역할을 하는 다른 관계사들과 달리, 관계대명사 what은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선행사가 없으며, 명사절을 이끄는 역할을 한다. (what=the thing which)

위 문장에서는 관계대명사절(what they did)이 followed의 목적어 역할을 한다.

- <해석〉 내가 밖으로 나갔을 때, 나는 다른 승객들이 내리면서 박수를 치고 있는 것을 알아챘다. 엄마와 나는 왜인지 알지 못한 채 그들이 하는 것을 따라했다.
- When I said I 1) <u>wanted to learn</u> more, they 2) <u>suggested that we go</u> to the National Museum of Greenland together.

1) to부정사를 목적어로 가지는 동사

동사에 따라 to부정사를 목적어로 가지거나, 동명사를 목적어로 가지거나, 둘 다를 목적어로 가지기도 한다.

want, wish, hope, choose, aim, agree, promise, refuse, expect, manage, decide 등의 동사는 to부정사만을 목적어로 가진다.

2) 제안, 요구, 주장, 명령 동사

제안, 요구, 주장, 명령을 뜻하는 동사에 이어지는 that절이 당위성을 나타낼 경우 should를 생략하고 동사원형만 남기는 경우가 많다.

〈해석〉 내가 더 많이 배우고 싶다고 말하자, 그들은 다 함께 그린란드 국립 박물관에 갈 것을 제안했다.



미리보는 빈출문장

When I got close to it 1) and looked up, I felt as if I were in Giant Land in Gulliver's Travels.

1) 병렬구조

등위접속사 and, but, or 등은 둘 이상의 문장 성분을 연결하는데, 이때 연결되는 문장 성분들은 동일한 성분과 형태가 같아야 한다. 위 문장의 경우 and가 종속절의 주어 I에 이어지는 과거시제 동사 got close to it과 looked up을 연결한다. 연결되는 요소는 모두 동사이고, 과거시제로 성분과 형태가 같다.

2) as if 가정법

일반 가정법과 마찬가지로 현재나 과거의 상황과 반대되는 상황을 가정하여 바램'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as if + 주어 + 동사의 과거형 ~] 이 가정법 현재를, [as if + 주어 + had p.p~]가 가정법 과거를 나타낸다. 실제 상황과 반대를 가정하므로, 가정법 문장에 쓰인 내용은 사실 그렇지 않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해석〉 내가 이것 가까이로 가서 올려보았을 때, 나는 마치 내가 걸리버 여행기의 거인국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I wanted to see a dog sled, but it was not 1)snowy enough for them yet. We took a boat from the town harbor 2)to see the icebergs better. 3)What we saw as we approached them left us speechless.

1) 부사 enough

부사 enough는 '충분히'라는 의미를 나타내며 형용사나 동사를 수식한다. 형용사를 꾸미는 부사 enough는 형용사의 '뒤'에서 앞에 있는 형용사를 꾸민다.

2) to부정사 부사적 용법

to부정사 부사적 용법은 목적, 원인, 이유·판단의 근거, 결과, 조건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한다. 위 문장의 to부정사는 부사적 용법 중 목적을 나타내며,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한다.

3) 관계대명사 what

선행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절의 역할을 하는 다른 관계사들과 달리, 관계대명사 what은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선행사가 없으며, 명사절을 이끄는 역할을 한다. (what=the thing which) 위 문장에서는 관계대명사절(what ~ them)이 문장의 주어 역할을 한다.

〈해석〉나는 개 썰매를 보고 싶었지만, 아직 그것들이 지나다니기에는 충분히 눈이 많이 오지 않았었다. 우리는 빙산을 더 잘 보기 위해 도시의 항구에서 배를 탔다.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면서 본 것은 우리의 말문이 막히게 했다.

1)Leaving Ilulissat behind, we went to Kangerlussuaq, the final destination of our journey. It is 2)one of the best places in Greenland to see the Northern Lights.

1) 분사구문

[접속사+주어+동사~]로 이루어진 부사절에서 접속사의 의미가 유추 가능하고, 주절의 주어와 종속절의 주어가 같을 때 접속사와 주절을 생략하고 동사를 현재분사로 바꾸어 분사구문으로 나타낼 수 있다. 위 문장은 부사절 "As we left Ilulissat behind"로 바꾸어 쓸 수 있다.

2) one of + 복수명사

"~중 하나"라는 뜻으로 사용하며, [one of 복수명사]가 주어로 사용되면 단수 취급하여 뒤에 3인칭 단수동사가 와야 한다.

《해석》일루리사트를 뒤로하고, 우리는 우리 여정의 마지막 목적지인 캉에를루수아크로 갔다. 그곳은 그린란드에서 북극광을 보기에 가장 좋은 장소들 중 하나이다.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제33조에 의한 표시

- 1) 제작연월일 : 2020-06-10
- 2) 제작자 : 교육지대㈜
- 3) 이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라 최초 제작일부터 5년간 보호됩니다.

◇「콘텐츠산업 진흥법」외에도「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콘텐츠의 경우, 그 콘텐츠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것은 콘텐츠산업 진흥법 외에도 저작권법에 의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